

전남 양식어업 생산액 10개월만에 1조 돌파

올해 사상 최대 규모 예고 ... 김·전복·꼬막 기여

전체 수산물생산 2조 시대 ... 친환경 새우양식 추진

양식어업이 전남도 수산업의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그 생산액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 들어 10개월만에 양식어업 생산액이 1조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11월 전남도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 말 현재까지 도내 양식어업 생산량은 124만3000t, 생산액은 1조496억원이다. 이는 2015년 같은 기간에 비해 생산량은 17만8000t(17%), 생산액은 1461

억원(16%) 증가한 규모다.

특히 2015년 총 양식어업 생산액(1조128억원)을 2개월 앞당겨 뛰어넘었다.

어선어업과 내수면을 포함한 전체 수산물 생산액도 134만3000t, 1조7889억원으로 2015년에 비해 생산량은 166t(14%), 생산액은 1535억원(9%) 늘었다. 양식어업은 1조496억원, 내수면 어업이 1483억원, 어선어업은 5910억원의 생산

액을 기록했다.

전남도는 김, 전복, 꼬막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 생산액은 지속적인 수출국 다변화 및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물값 폭등현상이 일어나 지난해에 비해 886억원(48%)이 늘어 생산액은 2974억원이었다. 전복은 출하 가능 물량이 늘어난 가운데 중국 등 수출 증가로 2015년(8404t)보다 28% 증가한 1만728t이며, 생산액 또한 257억원(9%)이 늘어난 2970억원으로 나타났다.

꼬막은 올해부터 전라남도 자체 꼬막류 조사 결과를 국가 통계로 직접 반영하는 등 제도 개선

을 통해 2015년보다 3634t(628%)이 증가해 생산액은 112억원(196%)이 증가한 169억원 규모다.

김, 미역 등 해조류의 본격적인 생산 시기가 11·12월임을 감안하면 2016년 총 생산액은 지난해보다 2000억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배택휴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업을 저비용고소득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노후 양식시설을 현대화하고 자동화장비를 확충, 경영비를 절감하고 친환경 새우 양식시설·축제식 해상 양식장 조성 등 차세대 양식 품목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주간 증시 포커스

탄핵 결과 외국인 대응 주목

美 금리인상 여부 관심 집중

반도체·철강주 강세 이어질 듯

지난주 국내증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이었지만 연중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글로벌증시의 긍정적인 흐름에 따라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하였다.

그 동안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외국인의 대규모 선물매도포지션은 선물만기를 이들 앞둔 6일에 1만계약이 넘는 12월 선물물 환매수와 함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강한 순매수를 보이며 시장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관심을 모았던 8일 선물물인 동시만기일에는 연말배당수익기대에 따라 인덱스펀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순매수가 유입되며 코스피지수가 모처럼 39포인트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다.

9일 국회는 예상보다 높은 찬성률로 박근혜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 시켰다.

국회의 탄핵안 투표를 앞둔 지난 금요일 국내증시는 숨을 죽였다. 전날 급등에 따라 코스피지수는 소폭조정세를 보였고 최근 침체를 보였던 코스닥시장은 모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보이며 반등을 보였다.

탄핵 부결이라는 최악의 불확실성은 피해 다행이지만 향후 시장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높은 찬성률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불확실성을 견여내고 헌법재판소 결정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정치적 변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고 현재의 최종 판단까지는 상당기간이 필요하고 이후 조기 대선에 따른 정국혼란이 국내증시에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

탄핵결과가 반영되는 월요일 외국인의 시장대응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탄핵이슈보다는 미국 12월 FOMC에 관심이 집중되며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국내증시는 점진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매도세가 강화된다면 당분간 국내증시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이번 주 주요 이슈는 한국시간기준 14~15일에 열리는 미국 FOMC 회의다. 미국경제지표와 실업률 등이 개선되고 있고 트럼프발 리플레이션(불황기에 심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재정과 금융을 확대하면서 경기회복을 유도하는 것) 기대감화를 고려했을 때 금리인상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은 최근 실세금리가 상당부분 선반영되었고 향후 금리인상속도가 시장에 우호적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장에 부담이리키 보다는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5일 한국은행 12월 금통위에 서는 기준금리 1.25% 동결을 예상하고 있다.

이번 주에도 유가증권시장은 최근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도체, 은행, 철강, 화학 등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필자가 12월 FOMC 금리결정 이전에 코스닥시장에 대해 하락시 대비보다는 저점매수를 권유했었다. 이제는 불확실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수급적인 요건 때문에 단기 급락한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 시기이며 최근 공매도가 증가하며 하락세를 보인 음식료와 화장품 업종도 연말 숫자버핑에 따른 단기적 대응도 가능해 보인다.

정 계 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농협전남본부, 고금노인센터에 행복나눔 도시락 배달차량 전달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는 최근 완도 고금재가노인복지센터(센터장 이삼국)에 전남농협 임직원의 성금으로 마련한 행복나눔 도시락 배달차량 전달식을 했다. 이날 기증식에는 강남경 전남농협 본부장, 신우철 완도군수, 정희영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이 참석했고, 기증된 차량은 전남농협 임직원들이 매일 급여에서 일정을 정기적으로 모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적립한 행복나눔기금으로 마련됐다. 전남농협은 2014년부터 매년 1대씩 기증하였으며 2016년 제3호 차량이 기증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소비자들 쌀 구입때 품질·맛 가장 먼저 따진다”

장바구니 체감 물가 11% ↑

식품구입 ‘주 1회’ 44% 1위

농촌경제연구원 ‘가구 소비행태’

국내 소비자들은 쌀을 구입할 때 가장 먼저 품질과 맛을 따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계임 박사 연구팀이 11일 발표한 ‘2016년도 가구 내 식품 구입 및 소비행태’에 따르면 쌀 구입 시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품질(35.2%), 맛(30.2%), 가격(13.6%)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 대비 2017년 밥 먹는 횟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비중은 약 18% 수준인 반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가구의 비중은 약 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소비행태조사(The Consumer Behavior Survey for Food, CBSF)는 가구 내 식품 주구입자, 성인 및 청소년 가구원을 대상으로 가구 및 개인의 식품 소비와 식생활 파악을 목적으로 2013년부터 해마다 실시되고 있다.

조사 결과, 가구의 식품 구입 빈도는 ‘주 1회(44.4%)’가 가장 많았고, ‘주 2~3회 이상’ 식품을 구입하는 가구는 36.6%였다. 가구 내 식품

주구입자들이 주로 식품을 구입하는 장소는 대형 할인점,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 재래시장 순이었다.

식품 소비 지출액이 2015년에 비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7%p 감소(2015년 38.5%→2016년 34.8%)하였다. 2016년 대비 2017년 가구 내 식품 소비 지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던 식품류는 과일류, 채소류, 잡곡류 순이며, 품목 중에서는 우유, 계란 등이었다.

장바구니 체감 물가 수준은 2015년 대비 11%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작년

12%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품목별 소비행태를 살펴보면, 곡물의 경우 조식가구의 절반 이상(57.4%)이 ‘2~3개월에 1회’ 쌀(현미 포함)을 조달하고 있었으며, 쌀을 ‘전부 직접 구입’한다는 응답이 68.1%를 차지해 2014년부터 그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향후 수입할 소비 의향에 대한 조사 결과, 10.0%가 ‘취식의향 있다’고 응답하여 완만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는 전체 응답가구의 40.6%가 ‘주 1회’ 조달, 32.1%는 ‘주 2~3회’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류 구입주기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채소류 구입 시 고려하는 사항은 품질(36.8%), 맛(27.5%), 가격(15.1%)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골드키위 2016년 美 첫 수출 상차식

농협전남본부, 벌교농협유통센터서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는 최근 벌교농협(조합장 김기순)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이용부 보성군수·강복수 보성군의회의를

안성열 농협보성군지부장·벌교농협 골드키위 시범수출단지 참여농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유망품목으로 육성중인 골드키위의 2016년 미국 첫 수출을 기념하는 상차식을 했다.

이날 벌교농협산지유통센터에서 선별·포장

한 골드키위 20톤은 부산항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되며, 미국 전역에 공급망을 가지고 있는 ‘H-mart’ 13개 점포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전남농협은 작년부터 수출을 시작한 벌교농협 골드키위 농가를 수출전문조직으로 꾸려내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벌교농협을 골드키위 시범수출단지로 선정했다. 이 후, 농촌진흥청과 함께 수출국별 키워농약안전사용지침을 설정하

고 키워전문가를 초청하여 현장컨설팅을 진행하기도 했다.벌교농협은 작년 제1골드키위를 미국으로 20t 수출했으며, 올해는 네 배 이상 성장한 40t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전남농협은 홍콩 등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지난 주부터 홍콩에서 골드키위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총 수출목표 물량은 80t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중개법인 한국토지경매

대표 1522·3396

경매 병원 감정가 140억, 최저가 78억 목포시 석현동 / 4층 / 대지 3659평, 건물 2522평	경매 골프장 감정가 39억8천만, 최저가 27억8천만 광양시 봉강면 / 9홀 / 대지 9673평, 건물 232평
매매 오피스텔 매매가 42억 조선대공대입구 / 10층 / 신축 / 대지 183평, 건물 600평	매매 상가건물 매매가 15억 첨단 / 3층 / 대지 198평, 건물 450평

부동산 매도 / 매수 상담환영

토지 / 상가 / 공장 / 창고 / 임야 010 - 6772 - 1114 김 주 성

경매	교육 연구 시설 순천시 낙안면 / 대지 3987평 건물 336평 / 1종일반주거지역 / 아곡마을 내 위치 / 수목 식재	감정가 16억 2천만, 최저가 11억 3천만
	가스충전소 화순 화순읍 / 대지 977평 건물 63평 / 자연녹지지역 / 35m도로접 / 자동차차기 / 3기 6구	감정가 12억 7천만, 최저가 7억 1천만
	수익형 상가 건물 동구 금남로 / 총 4층 / 대지 118평 건물 305평 / 중심상업지역 / 금남로4가역 부근	감정가 10억, 최저가 10억
	숙박시설 북구 흥흥동 / 총 8층 / 대지 91평 건물 340평 / 일반상업지역 / 코너 / 광주역 앞 위치	감정가 9억 4천만, 최저가 6억 6천만
매매	상가 서구 풍암동 / 대지 400평 건물 100평 / 윤리중학교 인근 / 주차시설 / 현 식당 영업중	매매가 17억
	연립주택 부지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 담 1098평 /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 주변 명품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매매가 12억
	전원주택 담양 수북면 / 대지 1100평 건물 70평 / 조경 수목 식재	매매가 10억
	숙박시설 부지 광산구 우산동 / 대지 181평 / 일반상업지역	매매가 8억 5천만
매매	임대 수익형 다세대 주택 북구 운암동 / 대지 110평 건물 125평 / 3층 건물 / 22평형 67구 / 공실없음	매매가 5억 5천만
	연립주택 및 빌라 부지 영암군 영암읍 춘양리 / 전 1513평 / 1종일반주거지역 / 도로접 / 월출산 조망	매매가 4억 3천만